

방천촌, 민박업으로 촌민들 섶땡 펴이여



민족풍격이 다분한 방천촌 조선족 전통 민박

훈춘 시내에서 7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방천촌에 들어서면 청기와와 하얀 벽이 잘 어우러지고 처마끝이 치켜들린 고풍스러운 조선족 전통 민가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촌길을 따라 천천히 걷노라면 하얀 갈매기가 때로는 호수가를 선화하고 때로는 호수에서 먹이를 찾는 광경을 볼 수 있다. 빨간색 지붕의 정자, 오래된 매돌, 조선족 특색이 다분한 선물가게, 흙벽돌과 비짚으로 쌓아올린 담장... 다양한 경관이 마을 곳곳에 흩어져 가는 곳마다 풍경을 이루고 있다. 지리적 위치가 우월한 경신진 방천촌은 우리 나라에서 유일하게 중국, 로씨야, 조선 3국 접경지에 위치한 조선족 마을로 '동방 제1촌'으로 불리고 있다.

이곳은 '기러기 울음소리가 3국

에 들리고 호랑이 포효소리가 3국에 울리며 꽃이 피면 향기가 3국에 그윽하고 웃음소리가 3국에 퍼진다.'는 미칭뿐만 아니라 '갈매기만 보이고 바다가 보이지 않는' 신기한 풍경을 가지고 있다. '한눈에 3국을 굽어보는' 방천 통호각풍경구는 특별한 지리위치와 순박한 조선족 민풍을 빌어 중외 관광객들이 훈춘을 관광할 때 가장 먼저 찾는 '필수 방문지'로 부상했다.

현재 이곳은 평일에도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료해한 데 따르면 방천촌은 독특한 지리위치, 력사문화와 조선족 민족 유산에 립각해 '촌과 기업 공동 건설' 운영 모식으로 방천 '동방제1촌' 옛마을 대상을 건설했다. 올해 50여세인 촌민 리두현은 6년째 민박을 경

영하고 있다. "우리 민박은 하루 10명이 묵을 수 있으며 민박 경영을 통해 매년 1.5만원을 벌고 있다." 리두현은 민박을 경영하면서 돈주머니가 두둑해지고 섶땡이 갈수록 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천촌에서 민박 경영으로 치부한 촌민들중의 한명에 불과하다. 방천촌당지부 서기 김웅은 '동방제1촌' 옛마을 대상을 '회사+농가'를 발전 모식으로 방천촌촌민위원회와 대상건설단위에서 공동으로 관광회사를 설립하고 통일적인 기업화 운영관리와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촌의 촌민들은 매년 1.2만원의 임대가격으로 주택을 관광회사에 임대할 수도 있고 스스로 민박을 경영할 수도 있다. '촌과 기업 공동 건설' 모식을 통해 관광회사는 촌의 토지를 리

용해 명소, 풍경구, 호텔, 관광객중심과 상업거리 등을 건설하여 촌민, 촌집체와 기업의 상생을 실현했다.

현재 방천촌에는 41채의 민박이 있는데 한채당 부지면적이 220평방미터, 건축면적이 80평방미터에 이르며 민박마다 독특한 정원경관을 조성했다. 실내는 유선텔레비존이 설치되고 통신시설이 구전하며 옷장, 싱크대, 주방도구 등 생활도구와 생필품이 구비되어 있고 40평방미터의 조선족 음식은 동시에 2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고유한 조선족 생활을 몸담식으로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촌민들이 만든 김치, 순대, 랑면 등 조선족 특색음식을 맛볼 수 있다.

밤장막이 드리울 때면 관광객들은 촌의 음악광장에 모여 사람을 때로시키는 야경 속에서 음악분수, 수막영화와 레이저쇼를 감상한다. 광장 한가운데서 모닥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이들은 자발적으로 손을 잡고 모닥불을 둘러싸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서 아름다운 밤을 만끽한다.

김웅 서기는 "방천 '동방제1촌' 옛마을 대상이 생기면서 집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자 외지 로무를 나갔던 많은 촌민들이 촌에 돌아와 향촌 건설에 뛰어들고 향촌 진흥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동방제1촌' 옛마을 대상을 제외하고도 방천촌에서는 70만원을 투입해 황소사육 대상을 발전시켜 촌집체를 위해 해마다 5만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어획합작사도 내왔는데 연간 3만여근을 어획하면서 13가구의 사원들이 해마다 가구당 6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됐다. 2023년 방천촌의 촌집체 경제수입은 50여만원에 달했고 촌민들의 연간 인당 가져분소득은 7만원에 달했다.

/ 김립일보



방천촌에 들어선 관광상점과 카페



방천통경구에서 3국 변경을 구경하고 있는 관광객들

스마트농업, 인공지능으로 품질·맛·소득 '일거삼득'

강소성 남경시 톨수구에 있는 강소성농업과학원 스마트농업혁신팀 스마트온실, 인공지능(AI)이 조절한 적정 온도에서 10여종의 도마도가 한창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강소성농업과학원 농업정보연구소 소장이자 스마트농업혁신팀 수석연구원원 임니는 스마트온실에 물, 비료 일체화 스마트관리제어 시스템이 갖춰져있다고 소개하면서 "시스템은 계절, 도마도의 개화 및 열매를 맺는 주기에 따라 물, 비료 조절을 자동으로 제어해 맛있는 도마도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말했다.

기온이 오르면 도마도의 잎에서 증산작용이 활발해져 더 많은 양분이 필요해진다. "바로 지금 이 시기에 AI가 제 물을 똑똑히 해줍니다." 강소성농업과학원 농업정보연구소 부소장 류가옥은 "환경 센서가 온실 온도가 30도까지 오르는 것을 포착하면 스마트관리제어 시스템이 적시에 물, 비료 기계, 집적관수 등 장치를 가동해 물과 비료의 공급을 늘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류가옥 부소장은 "도마도 과실과 덩굴 사이에 공기 센서, 토양 센서, 수질 센서를 설치하고 온실 주변에는 카

메라를 달았으며 실외에는 소형 기상관측소 등 감지 단말기를 설치했습니다. 직원이 휴대전화를 통해 환경 변화, 농작물의 생장, 설비 가동 등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했다.

'AI 도마도'에 담긴 '블랙 테크놀로지'는 농업이 기존의 '주먹구구식'에서 지혜농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15도 정도의 환경이 도

마도 생장에 적합합니다. 센서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외부 기상정보를 결합하면 스마트 관리제어 시스템이 사람을 대신해 농작물을 '살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환경 매개변수 모니터링과 자동 조절이 이뤄지며 설비들은 컴퓨터로 스마트 제어됩니다." 류가옥 부소장은 어떤 특정 지표를 단독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도, 빛, 수분, 비료, 공기 등을 종합적으

로 조절해 도마도가 최적의 환경과 영양 조건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과학적 재배에 힘입어 도마도의 품질은 더 좋아졌고 근간 판매가도 25원에 달해 재배호의 소득을 증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과학기술은 또한 로동력을 줄이고 효률을 끌어올렸다. 일반적인 재배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한사람이 660여평방미터의 면적을 관리하느라 설 새 없이 바빴으나 이제는 혼자서 2,600여평방미터의 면적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온실에서 재배되는 방울도마도의 연간 생산량은 667평방미터당 1만키로그램 이상이며 근간 10원의 도매가로 계산해도 연간 생산액이 20만원 이상에 달한다. 최근 수년간 강소성농업과학원은 스마트농업 발전에 주력하여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AI 등 정보기술과 농업 전체 산업사슬의 심도 있는 융합을 추진하고 있다. 강소성농업과학원이 개발한 스마트농업 종합 솔루션은 지금 강소성의 6개 농업재배기지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딸기 재배를 포함한 다른 과일과 채소 재배에도 적용되고 있다.

/ 신화넷



강소성농업과학원 스마트온실에서 도마도를 수확하고 있다.

2023년 전국 농민공 191만명 증가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2023년 농민공 검측조사보고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농민공 총수는 전해에 비해 191만명 증가한 2억 9,753만명으로 성장률이 0.6%에 달했다.

보고에 따르면 농민공 월평균 수입이 평온하게 늘어났다. 2023년 농민공 월평균 수입은 그 전해보다 165원 증가한 4,780원으로 성장률이 3.6%에 달했다. 외출 농민공의 월평균 수입 성장 속도는 본지 농민공보다 1.2% 포인트 빨랐다.

보고에 따르면 2023년 농민공의 평균 나이는 43.1살로 그 전해보다 0.8살 늘어났다. 전문대학(大专) 이상 문화정도의 농민공이 차

지하는 비율은 그 전해보다 2.1% 포인트 높아졌다. 도시 진입 농민공들의 3~5살 수행아동 유치원 입학률은 90.9%에 달했다. 유치원 유형으로 보면 42.3%가 공립유치원에 입학하여 그 전해보다 0.3% 제고되고 30.6%가 일반특혜성 민영유치원에 입학하여 그 전해에 비해 2.9% 포인트 높아졌다.

의무교육단계 수행아동 입학률은 99.7%에 달했다. 그중 소학교단계 수행아동 90.1%가 공립학교에 입학하여 그 전해보다 1.8% 포인트 제고되고 초중단계 수행아동 91.0%가 공립학교에 입학하여 그 전해보다 3.2% 포인트 제고되었다.

/ 신화사

연길시 덕신촌 사과배꽃 활짝 올해도 풍년 기약



연길시 조양천진 덕신촌에 위치한 연변철보과업유한회사의 과원에 사과배꽃이 만개, 일꾼들이 한창 꽃에 수분을 하느라 바쁜 모습들이다.

소개에 따르면 철보과업유한회사의 사과배밭 면적은 30헥타르, 사과배나무가 6,000여그루에 달한다. 금년에 질 좋은 사과배 130만근 이상 수확을 예상, 200만원 수익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 총경리 강성규에 따르면 기업에서는 2016년부터 사과배 판매 시장이 저조하고 가격이 낮은 상황에 비추어 사과배 심가공에 힘을 기울여 사과배엿을 연구 개발해냈다. 몇년 동안의 노력을 거쳐 이미 표준화 생산으로 발전했으며 한해에 사과배엿 20여톤을 가공해 600여만원

에 달하는 판매액을 올리고 있다.

당지의 촌민들은 외지로 나가지 않고 철보과업유한회사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 촌민 서봉배는 "이곳에서 일하면서 일년에 몇만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으니 외지에 나가서 버는 것보다 훨씬 좋다. 그리고 집에서 자기의 밭도 부릴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고 말했다.

당지 촌민들은 철보과업유한회사에서 초여름에는 사과배꽃에 수분을 하고 한여름에는 과일을 숙아내며 가을에 가서는 사과배를 따고 겨울 한철에는 사과배엿을 가공하는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버는데 한해 수입이 사오만원에 달한다.

/ 리철수기자

현대농업기술 도입해 농업생산에 새로운 활력 주입



길림성 건안현 수자진 부양촌당 지부에서 이끄는 합작사에서는 올해 토지 210헥타르를 도급받고 새로운 농업재배기술을 도입하여 다수확 확보에 나섰다.

이 합작사에서는 전통적인 경작 방식을 개편하고 고표준 농지에 물과 비료를 동시에 공급하는 점적관개 기술, 새로운 파종 방법인 이랑을 만들지 않고 평지에 줄 사이를

좁혀서 파종하는 정랑파종 방식과 종자를 얹게 파종하던 방식에서 심송(深松) 파종하는 현대농업기술을 도입하여 토지자원의 최대한 리용과 다수확 및 품질 보장에 나섬으로써 농업생산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했다. 사진은 합작사 일꾼들이 밭에 점적관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이다.

/ 정천원